

## 인도네시아 메단 박 철수 선교사 기도편지 ( 2021. 07. 14 )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제는 점차 나아지려나하는 모든 이들의 바램이, 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장으로 인해 다시 미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끝 모를 인내의 시간을 또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상황도, 급격히 나빠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일시 멈추어진 상황이거나,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월13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4만7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일일 확진자 수로는 인도, 영국을 넘어 이틀째 세계 1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도 864명으로 집계되어, 이 또한 세계 1위의 일일 사망자 숫자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지난 달부터의 급증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주 정부에서 긴급 통행금지와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급 학교의 비대면 교육과, 모든 직장의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엄중한 상황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모습들 때문에 매일 확진자 신기록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나가보면, 저희 사역지 메단 주민들의 70%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월요일인 12일부터 2주간 비상 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발령하였고, 저희 메단을 포함한 15개 도시에서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면예배를 비대면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모든 교육도 ZOOM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매일 성도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 중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입원 중인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곳곳에서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되어 격리되는 선교사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염려가 됩니다.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지인 성도들과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코로나로 확진되어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분들을 위한 도움도 필요합니다. 현지 성도들을 위한 마스크와 생필품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길만이 이 어려움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아뢰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발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기를 함께 손모아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비전과 주님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님의 기도로 인해, 이 땅 선교지가 변화되고 복음의 씨앗에 싹이 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선교사가 백신 2차 접종과 한국에서의 몇 가지 사역들로 인해 8월 초에 잠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항을 일시 폐쇄하는 락다운으로 인해 귀국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박 철수 선교사 드림